

집중탐구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개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19' 대회를 개최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농업전망 2019에선 1부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농업 미래', 2부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이정표', 3부 '산업별 중장기 미래'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농경연은 농업·농촌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가치와 기회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 중 기금산업-오리관련 이슈와 오리 및 오리고기 사육동향과 수급동향을 정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농업전망 2019' 대회를 개최했다.



## 미리보는 2019년 이슈

### ❖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닭, 계란)하기로 하였다.

- 2018년 가금 사육농장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 가금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생산단계에서는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과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하고, 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등 가금의 이동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의 이력 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가금 이력제 도입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이력번호 주체 비중(1차(20%): 2018년 11월 20일~2019년 5월, 2차(30%): 2019년 6~9월, 3차(70%): 2019년 10~11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사육농가 2,400호,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그림 1.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추적 과정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유통 의무화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된다. 조리·가공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인프라 확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 오리 사육제한

오리 사육제한은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 관할로 5개월간(2017년 11월~2018년 3월)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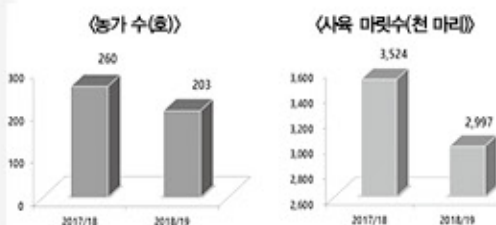
- 2017년에는 총 6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육제한 실시 규모는 약 350만 마리였다.

정부는 2018/19년에도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하였으며, HPAI 발생 위험이 높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 선정 기준은 지자체 관할 위험지역 내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위치한 농장 중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이며, 여기에는 HPAI 중복 발생농가,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와 밀집사육지역내 농가, 방역평가 미흡농가 등이 해당된다.

2018/19년 사육제한 대상 지자체는 총 5개(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며, 사육규모는 203농가, 약 300만 마리이다.

그림 2.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및 오리고기 사육동향

### ❖ 사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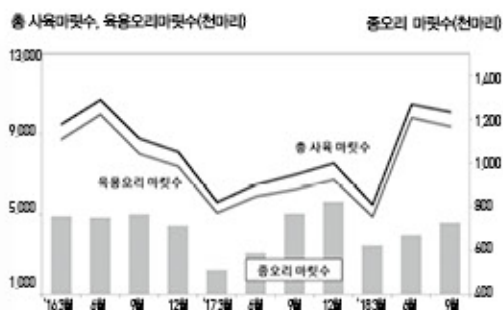
2018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사육 증가로 2017년(664만 마리)보다 27.8% 늘어난 848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18년 종오리는 72만 4천 마리, 육용오리는 775만 6천 마리로 2017년보다 각각 7.6%, 30.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3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2017년 11월~2018년 3월)으로 2017년 12월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사육제한 해제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6월에는 981만 8천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2018년 3월 오리 사육 가구수는 HPAI 발생과 오리 사육제한 실시로 360가구까지 줄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9월까지 600가구 이상을 유지하였다. 2018년 평균(9월 기준) 오리 사육 가구수는 541가구, 평균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1만 5,920마리로 2017년보다 각각 18.8%, 14.2% 증가하였다.

그림 3. 오리 사육 마릿수



자료 : 통계청

### ❖ 오리고기 수급 동향

2018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6,789만 마리로 2017년(4,825만 마리)보다 40.7% 증가했으며, 총 도압 마릿수 또한 6,748만 마리로 2017년보다 46.4%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9만 7,424톤으로

2017년(6만 7,399톤)보다 약 3만 톤 증가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7년보다 0.6kg 증가한 2.0kg이었다.

표 1. 오리고기 수급 동향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 (톤)	생산	158,303	106,450	118,328	118,898	67,399	97,424
	수입	2,942	2,949	3,130	3,379	3,461	5,210
	계	161,245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수요 (톤)	소비	160,948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수출	297	0	0	0	0	0
	계	161,245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1인당 소비량(kg)	3.2	2.2	2.4	2.4	1.4	2.0	

주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의 합인.

2)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오리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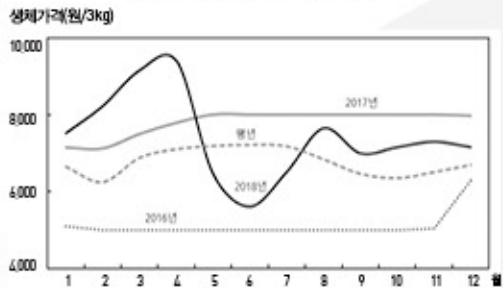
2017년 오리 산지가격(생체 3kg)은 공급량 부족이 지속되어 높게 유지되었다.

-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도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8,000원 수준의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HPAI로 인한 종오리 피해가 매우 커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 증가로 2017년(7,792원)보다 4.7% 하락한 7,428원이었다.

- 1~4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사육제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2% 상승한 8,575원이었다.
- 사육제한이 종료된 이후(4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이 급증하여 5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2% 하락한 6,465원이었다. 그러나 7~8월 오리 산지가격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육용병아리 공급 차질과 육용오리 생육 저하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4. 오리 산지가격 동향



자료 : 한국오리협회

## ❖ 오리 및 오리고기 수급 전망

2019년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약 73만 마리로 2018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사육 증가로 2018년보다 2.1% 증가한 866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9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8년보다 2.0% 증가한 9만 9,387톤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10만

3,471톤, 2028년에는 10만 7,942톤으로 전망된다.

2019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8년보다 9.0% 하락한 6,764원(생체 3kg)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7,301원, 2028년에는 7,914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도 오리고기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 오리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표 2.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사육 마릿수	만 마리	848	866	903	944
생산	톤	97,424	99,387	103,471	107,942
수입	톤	5,210	4,440	4,963	5,416
1인당 소비량	kg	2.0	2.0	2.1	2.1
산지가격	원/생체 3kg	7,428	6,764	7,301	7,914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정부의 사육제한 조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병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조

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리고기 조리법, 메뉴, 그리고 판매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금 및 가금산물 소비 행태

### ❖ 오리고기

소비자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연간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빈도는 '1~4회(가정 내 62.0%, 외식 71.7%)', '5~8회(가정 내 19.0%, 외식 13.5%)' 순으로 많았다.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소비자도 일부 조사되었다.

표 3. 연간 오리고기 소비빈도

구분	빈도					합계
	0회	1~4회	5~8회	9~12회	12회 이상	
가정 내 소비	53 (11.7)	281 (62.0)	86 (19.0)	16 (3.5)	17 (3.8)	453 (100.0)
외식(배달 포함) 소비	49 (10.8)	324 (71.7)	61 (13.5)	11 (2.4)	7 (1.5)	452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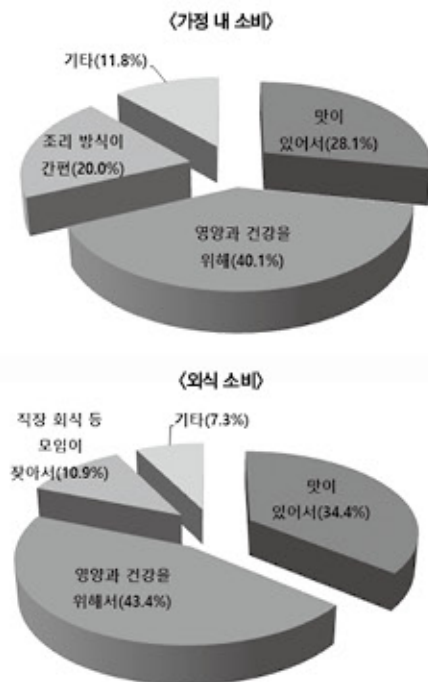
가정 내에서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42.6%), 로스 등 오리구이(31.0%), 오리주물럭(15.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용으로는 로스 등 오리구이(31.7%), 훈제오리(29.6%), 오리주물럭(19.9%)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를 먹는 주된 이유는 '영양과 건

강을 위해(가정 내 40.1%, 외식 43.8%), '맛이 있어서(가정 내 28.1%, 외식 34.4%)' 순으로 높았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식이 간편하여(20.0%), 외식으로는 직장 회식 등 모임이 잦아서(10.9%) 소비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기타 이유로 가정 내 소비에서는 주변 유명 음식점을 대신 이용하거나 다른 육류 대체용으로 먹는다는 답변 등이 있었으며, 외식소비에서는 한약재 사용 등 타육류에 비해 영양가가 높아서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

그림 6. 오리고기 소비주된 이유



자료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 먹기에는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식 소비도 이와 유사하게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40.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주변에 음식점이 많지 않다(28.3%)'는 답변도 많았다.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메뉴 개발과 효과적인 관련 정보(조리법 등)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구분	단위: 명 (%)	
	가정내 소비	외식 소비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너무 크거나 작음)	68 (16.0)	31 (7.0)
조리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266 (62.6)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179 (40.5)
오리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쌌	58 (13.6)	103 (23.3)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8 (4.2)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125 (28.3)
기타	15 (3.5)	4 (0.9)
합계	425 (100.0)	442 (100.0)

자료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